"10·27 법난 월주 스님·신군부 갈등 탓"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전두환 前 대통령 전후상황 보고 받은 듯"

"1980년 10월 27일 조계종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전국 사찰 및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했던 '10·27 법난'은 전두환 대통령이 전후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군부세력과 갈등관계인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10월 25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0·27법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성과는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원본과 실무대책반이 작성한 문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국민 및 대다수 불교신자들은 과장 왜곡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월주 총무원장 부정적인 평가에서 법난 비롯돼=과거사위는 법난이 신군부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80년 2월 문공부는 1977년 6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조계종 내의 종권 다툼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수습 중재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당시 주지인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한 개운사측 스님들이 사회민주화세력과 연합해 저항불교 세력으로 변화될 것을 우려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당국의 우려와는 달리 불교계는 같은 해 3월 30일 조계종 내의 양대 분규세력 대표자들이 종단불화사태 종식에 대한 합의서약을 이끌어내고 4월 26일 제6대 중앙종회에서 월주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합동수사단, 1980년 9월부터 사회정화 차원서 종교계 수사 준비 착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는 1980년 6월경 '3단계 사회정화계획'을 추진했으며, 10월 불교계 숙정을 계획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진정 및 투서횟수나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종교계 중 하나인 불교계를 수사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보위로부터 지시받은 합동수사단은 공권력을 동원해 10·27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발생하게 될 불교계의 종무마비 사태를 대비해 실무대책반을 구성,3단계의 수습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월주 스님, 총무원장 사퇴 강요당해=10월 27일 새벽부터 연행대상 69명 가운데 45명이 체포돼 서울 보안사 서빙고분실과 각 지역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혐의 인정을 강요받았다. 이어 당시 맡고있던 직책의 사직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월주 스님은 자신에 대한 투서 내용을 근거로 취조를 당했으나 담당수사관은 허위투서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월주 스님에게 총무원장 사퇴서를 강제로 받았다.

■전두환씨 법난 전후사정 보고받았을 가능성 높아=전두환 前 대통령은 1989년 12월 31일 국회 5공 청문회 증언에서 10·27 법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12월 11일 박기종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승려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답형식의 대화를 나눈 면담자료는 전 前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스님들 강제연행 및 고문 자행=수사기관에 연행된 스님들에게는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놓은 상태에서 조이기, 잠 안재우기, 코와 입에 고춧가루와 빙초산 섞은 물 붓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가 자행됐다.

한편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조계종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지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치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 및 10·27특별법제정 촉구 △한국불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요구 △종단의 10·27 법난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주일 · 여수령 기자

염규홍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사진 맨왼쪽)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10 · 27 법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성공 열쇠를 찾아서…

조계종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연수
4일간 태국 대표적 명상센터 등 순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7~21일, 5일간에 걸쳐 태국의 불교대학과 불교유적, 명상센터를 순례하는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남방 불교의 전통을 간직한 채 오랜 역사 속에서 유구한 불교문화를 꽃 피운 태국의 선진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둘러보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 템플스테이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마가 스님을 단장으로 한 40여명의 템플스테이 운영자들은 국민들의 신심과 수행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운 붓다몬톤과 대표적 불교대학인 쫄라롱껀 대학을 견학한데 이어 스님과 신심 깊은 불자들이 함께 일궈낸 태국의 대표적 명상센터 왓 마혜용과 왓 탐마까야를 방문했다. 120만 평의 규모의 붓다몬톤은 숲과 호수, 절이 어우러진 한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위빠사나를 비롯해,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18개의 팔리어 석경이 모셔진 곳으로 국민들을 불교의 품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태국 왕실의 깊은 신심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또 태국 최고의 왕립 불교대학인 쫄라롱껀 대학은 팔리어 패엽경이 보관된 도서관과 기숙사, 1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동을 갖추고 태국어 코스와 영어 코스를 따로 운영하는 등 선진화 된 태국 불교의 현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태국의 대표 명상센터인 왓 마혜용과 왓 탐마까야였다. 왓 마혜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탐분(보시)으로 운영되는 명상센터로 노천 수행을 위한 아름다운 숲과 대법당, 호수 위의 수행처, 대나무로 조성된 숙소 등 단촐하고 군더더기 없는 수행 시설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틀에 한번씩 진행되는 개인별 수행 점검은 이곳을 태국 최고의 명상센터로 이름을 알리게 한 자양분이 됐다.

왓 마혜용이 태국의 불자들 중심의 명상센터라면 왓 탐마까야는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왓 탐마까야 앞에 따라붙는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처럼 규모와 시설, 참가자 수 모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명상센터는 1970년대 태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쫄라롱껀 대학과 탐마대학의 졸업생 10명이 뜻을 모아 한국돈 10만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센터의 부지는 1만9000평에서 120만 평으로 늘었고 100만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관을 건립하고 있다. 또 전 세계 50개국에 분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과 아시아까지 자국의 언어로 왓 탐마까야의 명상법을 익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해외 연수에 동참한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은 "세속에 있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태국 불교의 모습이 우리 템플스테이의 나아갈 방향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관련인터뷰 8면>

태국=글/사진 공동취재단

'일일명예역장 체험행사'에 참여한 석연 스님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10월 25일 서울메트로가 개최한 '일일명예역장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조계사 포교국장 석연 스님은 서울 · 경지지역 102개 역 중 스님으로서는 유일하게 명예역장에 임명돼 매표소 발권 봉사, 질서유지 캠페인, 장애인 · 노약자 승차 도움, 차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글=여수령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관음사 직무대행에 시몽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월 24일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 시몽 스님을 재임명했다. 시몽 스님은 "두 번에 걸친 직무대행 임기 동안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많은 신도들이 관음사 정상화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에는 덕조 스님(경산 하양포교당 주지)이 임명돼 10월 22일 임명장을 받았다.

여수령 기자

I Love Buddha / 인과의 법칙

용정운(www.zentoon.com)

2,600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한 붓다의 6단계 정통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무산본각 이용현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하게 복원하고 체계화한 그는 현재 목포의 마음닦기선원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가면 붓다의 경지에 이른다

《불설대안반수의경》에는 수數 · 수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의 여섯 가지 수행 관문이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 '유일한 길' 혹은 '성스러운 길'이라 부르는 이 붓다의 정통 수행법은 오랜 세월 속에서 파편화되어 오늘날 북방 대승불교권에서는 싸마타를, 남방 근본불교권에서는 위빠싸나를 위주로 한 수행법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 책은 붓다 입멸 후 흩어지거나 잊혀졌던 수행법들을 다시 모으고 복원하여 일관되고 완벽한 수행 시스템으로 재해석, 재조직한 것이다. 이로써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책을 펴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하게 복원되기에 이르렀고, 한국 불교 1,6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적인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은 2,6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저작으로 꼽히는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도 언급되지 않은 싸마디(삼매)를 성취하는 수행법,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지관병수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도道의 명지明知'를 성취하는 방법 등을 실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붓다의 여섯 단계 수행법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還'과 '정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법을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이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불멸佛滅 후 2,500여년 만에 비로소 불교 수행법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무산본각 지음 | 전2권(각권 18,000원)

tel 02) 3143-0383 · 0338 fax 02) 3143-0378 유토피아